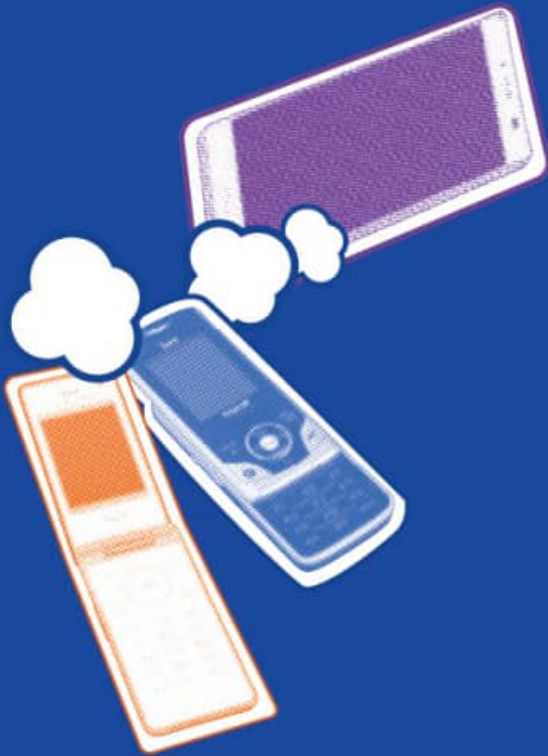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활성화지원사업
지역민 참여 프로젝트 「안녕~ 감독!」

2025
철박물관 기획전

와글 와글 감독: 이야기



Qm 철박물관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활성화지원사업
지역민 참여 프로젝트 「안녕~ 감곡!」

2025
철박물관 기획전

와글 와글

감곡: 이야기

2025년 10월 25일 ~ 12월 20일
철박물관 감곡클라우드

 철박물관



일러두기

- 이 책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된 2025 철박물관 기획전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의 전시 도록이다.
- 전시물을 중심으로 하되, 철박물관 소장자료를 함께 소개한다.
- 도판 설명은 명칭·크기·시대/국적·입수경로·설명 순으로 표기하였다.
- 입수경로는 기증·대여 자료만 표기하였다.
- 국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에 해당한다.
- 자료의 크기 단위는 cm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였다.



목 차

도록을 발간하며	05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를 열며	07
만남	10
시간	30
이야기	62
바람	86

도록을 발간하며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는 지역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철박물관 관장 장인경

철박물관이 자리한 이곳 감곡에서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시작한 지역민 참여 프로젝트 『안녕~감곡!』이 어느덧 세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박물관의 담장을 낮추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우리의 진심에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철박물관은 그동안 인류의 문명을 지탱해 온 ‘철’이라는 소재의 강인함과 기술적 가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더 큰 가치는 박물관 수장고 안의 유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발을 일구는 농기구에, 공장에서 땀 흘려 만들어낸 생산품에,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고 삶을 꾸려가는 지역민 여러분의 손마디에 있었습니다.

물건에 밴 기억, 워크숍 중에 흐르던 웃음과 눈물은 철박물관 활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지역민의 삶, 감곡의 바람과 냄새까지도 소중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지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철박물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구술,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감각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록에 담긴 기록들이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감곡의 뿌리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박물관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강창원, 김영숙, 박희정, 석군석, 전경희 님, 이야기 수집에 참여해주신 제일자동차부품 최윤혁, 철사랑공업사 박춘수 님께 다시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철박물관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내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떨 때 그것을 사용하나요?
(☎ 사진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아요!)

바람



취업을 준비하는 복극곰님처럼,
내 주변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응원을 남겨주세요.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세탁소 옷걸이처럼 하찮게 보였던 것,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현재,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소중한 물건이 있나요?
그것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민노들끼리

2023. 8. 6. 일터에 속사건 이야기 (양재역노들끼리)

김석용은

《와글 와글 감곡: 이야기》를 열며

지금, 철박물관의 수집은 계속되고 있다

철박물관 학예실장 권남희

철박물관의 수집은 멈추지 않는다. 2023년 문을 연 지역민 참여 프로젝트 『안녕~감곡!』은 “감곡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해의 설레는 만남은 2024년 지역 산업체의 철 생산품과 주민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이어졌고, 2025년 마침내 그 물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거대한 광맥에 닿았다. 오늘날 감곡, 음성군은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 최고의 이주민 비율을 기록하며 다문화 공동체로 재편되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충북혁신도시의 젊은 에너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기술과 노동을 조명하고자 하는 철박물관이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산업의 구조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그 속에 깃든 인간의 노동과 삶의 서사를 지역 공동체 안에서 찾고자 한다.

2025년, 철박물관의 ‘수집’은 그 의미와 범위를 과감히 확장했다. 그동안 수집품이 박물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물리적 근간이었다면, 이제는 수집에 이르는 모든 행위와 과정, 그리고 그 관계의 밀도까지 박물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우리는 지역민이 사용한 철 물건을 응시하며 그 안에 박제된 기억을 소환한다. 사용자의 표정, 목소리의 리듬, 삶의 냄새, 그리고 손끝에 남은 감각까지도 수집의 대상이 된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집의 여정은 9월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와 협업한 ‘철 물건 가지고, 박물관으로 복숭아 드시러 오세요’ 워크숍을 통해 더욱 풍성해졌다. 주민들이 각자의 사연이 담긴 철 물건을 들고 모여 나눈 대화와 온기는 이번 전시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전시는 박물관이 던진 질문에 지역민이 삶으로 응답한 결과물이자,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기록이다.

철박물관이 지향하는 수집은 이제 오브제의 물리적 존재감을 넘어 소리, 리듬, 냄새, 맛과 같은 공감각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 인터뷰와 워크숍으로 시작된 이 시도는 앞으로 다큐멘터리, 노래, 공연, 구술 등 더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감곡이라는 지역을 감각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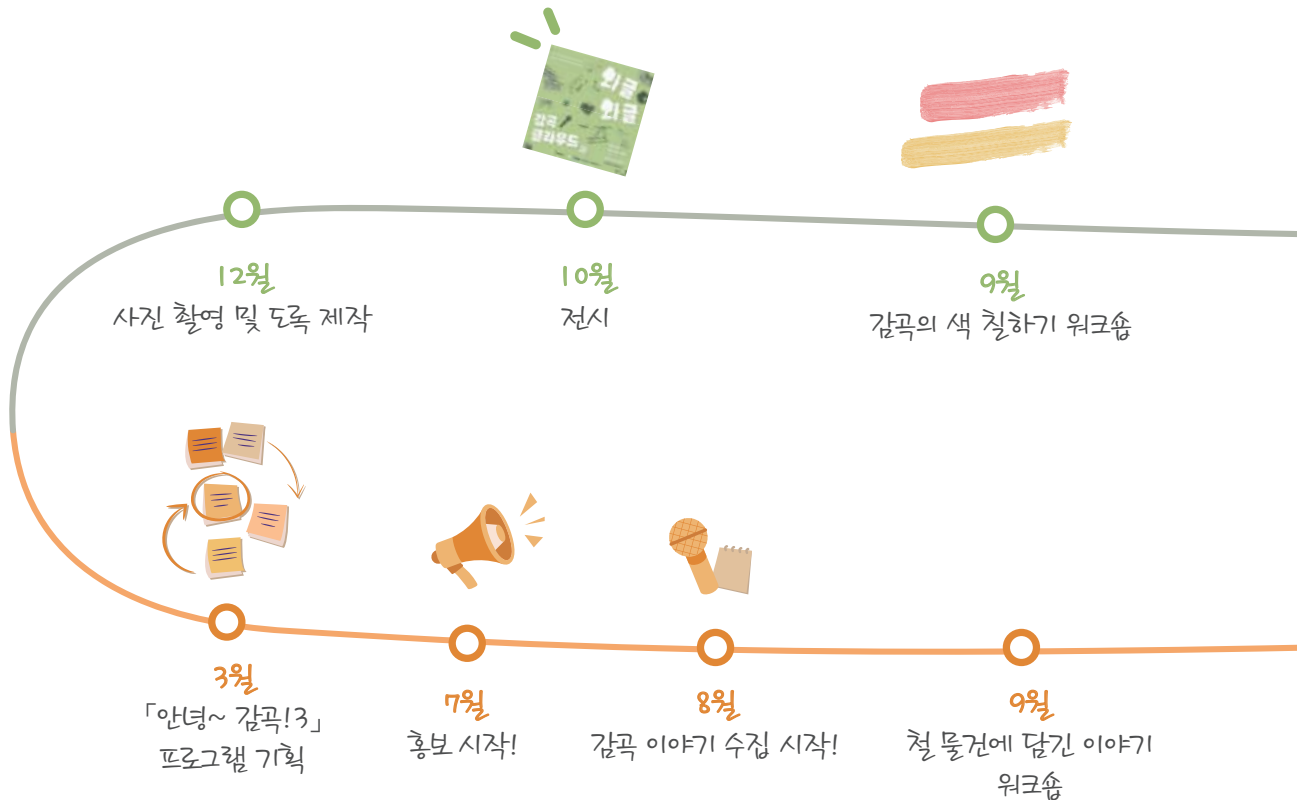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은 바로 지역민이다. 철박물관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살아있는 기록소이자 실험소가 되고자 한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철박물관의 수집은 계속되고 있다.

연표

2023



2025



2024

10월
전시 기획,
작품 설치



11월
전시 시작!

11월
교사 초청 워크숍



12월
도록, 영상 제작

8월
감곡의 색 찾기 워크숍



6월
홍보 시작!



4월
지역 산업체, 소상공인 조사



3월
「안녕~ 감곡! 2」
프로그램 기획

- 지역 이야기 수집
- 더 즐거운 참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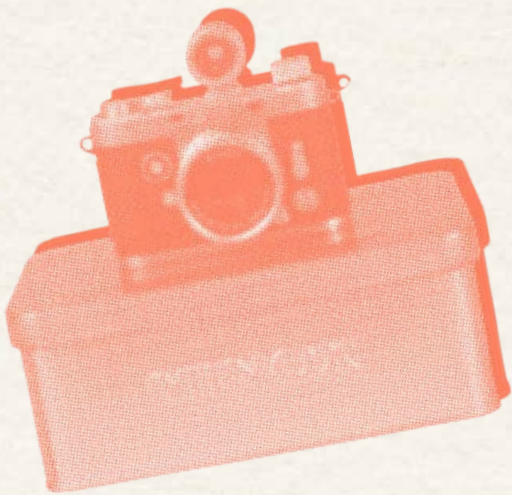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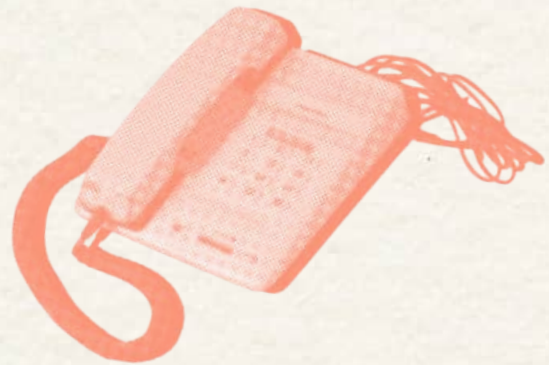


10월
전시 시작!

11월
이야기 공유와 편집

12월
사진 촬영 및 도록 제작

만남



우리의 만남을 쉽게 해 준 것은

지금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휴대폰을 활용하지만,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놓여 있었던 전화기를 통해 연락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저 00이 친구 ☆☆인데요, 00이 집에 있나요?”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길가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하곤 했다.

공중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동전을 들고 다니거나, 공중전화용 카드를 사서 자니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카드도, 동전도 없을 때에는 1541 콜렉트콜을 이용했다.

짧은 연결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다급하게 외치며 전화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다.

통신 수단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가?





01

공중전화
Payphone

가로 25.8, 세로 19.6, 높이 31.2

현대

02

분재 전화카드
Phonecard

가로 5.4, 세로 8.5

현대





03

공중전화
Payphone

가로 22.1, 세로 15.9, 높이 38.2

현대



04

전화기

Telephone

몸통: 가로 15.8, 세로 17.9, 높이 14.8

수화기 길이: 22.9

현대

다이얼을 돌려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전화기이다.

OS

전화기

Telephone

총전기: 가로 8.5, 세로 15.1, 높이 5.1

무선전화기: 가로 5.2, 세로 7.1, 높이 31.5

모뎀: 가로 13.5, 세로 19.3, 높이 4

현대

수화기에 전선이 없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이다.





06

전화기

Telephone

몸통 길이 22, 수화기 길이 23.6, 전체 높이 21.4

현대

07

전화기

Telephone

몸통: 가로 14.6, 세로 21, 높이 6.4

수화기 길이: 20.6

현대

이정옥 기증



“

제가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아이들의 모든 추억이 이 휴대폰 3개에 다 담겨 있어요. (중략)
 휴대폰이지만 통화보다 저는 카메라(기능) 위주로 썼어요. 모든 추억이나 모든 성장 과정을
 제가 이 안에 다 담았거든요. (중략) 제가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쁨과
 사랑과 슬픔이 다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추억,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폰은 '나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휴대폰>대여자 전경희 님 인터뷰 내용 중 -

카메라 폰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 발간된 모바일 잡지 『What
 Cellphone』 2000년 9월호에서는 삼성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 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일상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를 통한 기록과 기억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담긴 카메라로...



08

휴대폰 (sch-v840)

Cellphone

가로 4.5, 세로 10.2, 높이 1.6

현대

전경희 대여(2025)

얇은 두께의 피쳐폰(기능전화)으로,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리면 아래에서 숫자 키패드가 나타나는 슬라이드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폴더폰보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 쉬워 인기를 끌었으며, 삼성전자에서 2005년에 출시하였다.





09

휴대폰 (shw-a130k)

Cellphone

가로 5, 세로 10.5, 높이 1.4

현대
전경희 대여(2025)

국내 첫 유무선통합폰으로
삼성전자에서 2010년 7월에 출시했다.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인터넷 전화로 그 외 지역에서는
3세대(3G) 통신망으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화면 전체를 터치하는 터치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휴대폰이다.



10

스마트폰(IM-A870K)

Smartphone

가로 6.7, 세로 13.6, 높이 0.8

현대

전경희 대어(2025)

베가 아이언으로 불렸던 휴대폰으로 팬택에서 2013년 4월에 출시한 모델이다.



<휴대폰> 이야기 연결하기
전경희 인터뷰



11

카메라

Camera

가로 7.9, 세로 11.2, 높이 10.5
(가방: 가로 13, 세로 10, 높이 11.4)

현대

Kodak의 Six-20 Popular Brownie 모델로, 1939년~1943년 사이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2개의 뷰파인더가 각각 카메라의 상단과 측면에 있어,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과 필름 사용, 간단한 조작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제품이다. 우측의 카메라 보관 가방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12

카메라

Camera

길이 8.2, 너비 6.7, 높이 4.5

현대



13

카메라

Camera

가로 16.6, 세로 10.3, 높이 5.2

현대



14

카메라

Camera

가로 13.3, 세로 5, 높이 7.5

현대



15

카메라

Camera

가로 10.1, 세로 3.5, 높이 6.2

현대



철 물건 이야기 찾기



안녕! 국립 시골길의 철 물건 이야기

시골길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	칼	소장 시기나 방법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경주광역시
만들어진 곳 (국가/제작사)	조선시대	재질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철, 구리
만들어진 시기 (연도)	1950년대	쓰임새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요?	과수밭

이것이 나의 철 물건이야. 사진 찍어 붙이기

이것은 나의 철 물건이야. 사진 찍어 붙이기

나의 철 물건 '칼'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철 박물관

안녕! 국립 시골길의 철 물건 이야기

시골길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	연쇠고리	소장 시기나 방법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름
만들어진 곳 (국가/제작사)	조선시대	재질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철
만들어진 시기 (연도)	1950년대	쓰임새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요?	과피를 뜯는 도구

이것이 나의 철 물건이야. 사진 찍어 붙이기

이것이 나의 철 물건이야. 사진 찍어 붙이기

나의 철 물건 '연쇠고리'는 손과 과피를 뜯는 도구입니다. 철 박물관

안녕! 국립 시골길의 철 물건 이야기

지원은 철학교 교문 옆

넌 누구야?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	아기	소장 시기나 방법 언제, 어떻게 가져왔는지?	2003년 순라이프센터와 같이
만들어진 곳 (국가/제작사)	대한민국 / 삼성전자	재질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금속, 플라스틱
만들어진 시기 (연도)	2000년경	쓰임새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요?	머리카락은 빗장 관찰기록, 2003년

관찰하고 묘사하기 (그림+글)

사진 찍어 붙이기



2003년 9월 6일 순라이프 센터에서 복제 사진 찍은 아이의 머리카락은 엉성하고 길고 푸르스름한 나뭇잎 색깔로 인해 그 아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크기 가로 10cm, 세로 13cm, 높이 1cm

생각 떠올리고 연결해 보기

이야기해 보기



아이에게 핸드폰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2003년에 약 10살이 되던 아이에게 **과피를 뜯는 도구**라기보다는 **아기**라기보다는 **아기**라는 애칭을 붙여 주었다. 처음 아이를 볼 때 복제 사진 찍은 아이의 머리카락은 푸르스름한 나뭇잎 색깔로 인해 그 아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푸르스름한 나뭇잎 색깔로 인해 그 아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푸르스름한 나뭇잎 색깔로 인해 그 아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나의 철 물건 '핸드폰'

영원한 사랑이다. 철 박물관 IRON MUSEUM

+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휴대폰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이 1분 1초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향한 저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계속 계속 불렀어요~ 당시 학생이 직업이라 공부 보다 폰~ 할 수 없었지만...
밥 보다 폰~/ 잠 보다 폰~ / 놀이동산 보다 폰~ 제일 작았던
모토로라 폴더폰을 만날 수 있었죠~
한 손안에 쏙 잡히는 새로운 친구였어요~
사용하다 반이 쪼개졌지만 아직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랍니다~

아르바이트 생애 첫 월급으로 구입. 사진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는
키보드 누를 때마다 소리나던 .. 나의 시공간 확장이라는
지금의 감성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인간관계와 그 기록들을
하나의 도구에 정리할 수 있어 좋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첫 물건이기에
더더욱 애착이 가던 물건이었다

흑백배경화면에 단음이었지만 애지중지 여기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신기했다.
게임도 있었고 노래도 나오고
돌고다니면서 통화도 가능한
핸드폰이 너무 신기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다가
혼난 것은 덤...
첫 핸드폰은 결국 고1이 되어서야
쓸 수 있게 되었다

1993년에 회사에서 사원특혜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베를 사용하다가 처음 휴대폰을 구입한 나는
너무 신기해서 부모님께 자주 전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27년전 처음 코코라는 휴대폰을 접해봄,
행복 그 자체.

대학교 1학년 엄마가 처음 사주신 폰.
통화료가 비싸고 잘 안터질때가 많아서
악세서리처럼 들고다니다
공중전화를 더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로웠던 그때 나로 돌아가고싶다!

친구들이 삐삐 쓸 때 부러워만 하다가,
PCS 나왔을 때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게 됐어요~
기억에 '어필'이라고, 배우 안재욱이 광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도, 통화도 아주 제한적이어서
아끼고 아껴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99년 처음 휴대폰을 남편과같이 장만했던 날~
신기하고 좋아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전화를 했던 소중한 추억이 ^^

흑백 애니콜 폴더 였습니다.
그때는 전화 문자만 할 수있는 기종이었고
현재처럼 인터넷도 가능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옛날 저의 첫 핸드폰 사용하던 추억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만날 때 나는 10살이었어.
그 전까지는 엄마가 9살인데 휴대폰이 왜 필요냐고 했어.
하지만 나는 10살 때 처음 했던 앱은 바로 없었어.
나는 드디어 핸드폰 생기자 보더라고 했는데
11살 때. 바로 깨졌다고한다

신세계가 펼쳐진 느낌이었어.
흑백화면에 작은화면이었지만,
내가 누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아.

사랑하는 님에게 처음으로 한 선물로
너무 신기하고 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6년 내가 처음 만난 휴대폰은 모토롤라 제품이었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장점은 휴대폰을 찾기 쉽다는 것,
단점은 바지주머니에 넣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ㅋ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답변입니다.



시간



〈7자루의 낫〉과 〈바늘〉, 〈재봉틀〉로 베이고, 꿰매고, 워인 시간을 펼쳐봅니다

가족의 기억을 불러오고,
노동의 리듬을 품으며,
기술과 산업의 궤적을 따라 흐릅니다.

물건은 단지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시간의 매개체이자,
사라진 몸짓과 사운드,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기억의 매듭입니다.

일상에서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 물건은 무엇인가요?



16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55.4, 세로 41.6, 높이 76.1

현대

강창원 기증(2025)

기증자의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재봉틀이다.



그런데 전쟁 때 아버님이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중략) 모친이 미싱을 갖고 싶어 가지고 (중략) 그러니까 자꾸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가 할부로 이래 해가지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내 나이 보면 조금 내가 올해 만으로 하면 69, 69이지만 올해 70이거든요.

- <재봉틀>기증자 강창원 님 인터뷰 중 -



<재봉틀> 이야기 연결하기
강창원 인터뷰



단순한 브랜드명을 넘어 전세계 가정에서 기계 보급의 상징이었던

‘SINGER’ 재봉틀.

SINGER 재봉틀의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에는 할부(월부) 판매

전략이 있기도 했다.



66

이게 보면 메이커가 싱거잖아요. 카카오톡 들어가 가지고 싱거한테 물어봤더니만 이게 1954년도에 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6.25 전쟁 끝났으니까 한 1954년도에 그때 구입하신 것 같아요.

99

- <재봉틀>대여자 석균석 님 인터뷰 중 -



<재봉틀> 이야기 연결하기
석균석 인터뷰



17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44.5, 세로 21.3, 높이 30.5

현대

석균석 대여(2025)

대여자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재봉틀이다. 재봉틀의 다리 부분은 대여자가 어린 시절 엇과 바퀴 먹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방 한구석에서 명숙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재봉틀 페달을 밟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실냄새와 재봉틀에서 나는 기름 냄새를 맡으며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대면서

이불을 정리했다.

최은영, 『밝은 밤』, 문학동네, 2021.

재봉틀과 함께 쓰인 용어는 ‘미싱기’였다. 미국에서는 재봉틀을 쏘잉머신(Sewing-machine)이라고 불렀는데 기계를 뜻하는 ‘머신(machine)’을 일본에서는 ‘미싱(ミシン)’이라고 부른 것이다.

정명섭, 『근대 사물 탐구 사전』, 초록비책공방, 2022.



18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36.8, 세로 16.1, 높이 32.5

현대





19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49.9, 세로 22.6, 높이 35.5

현대

이정옥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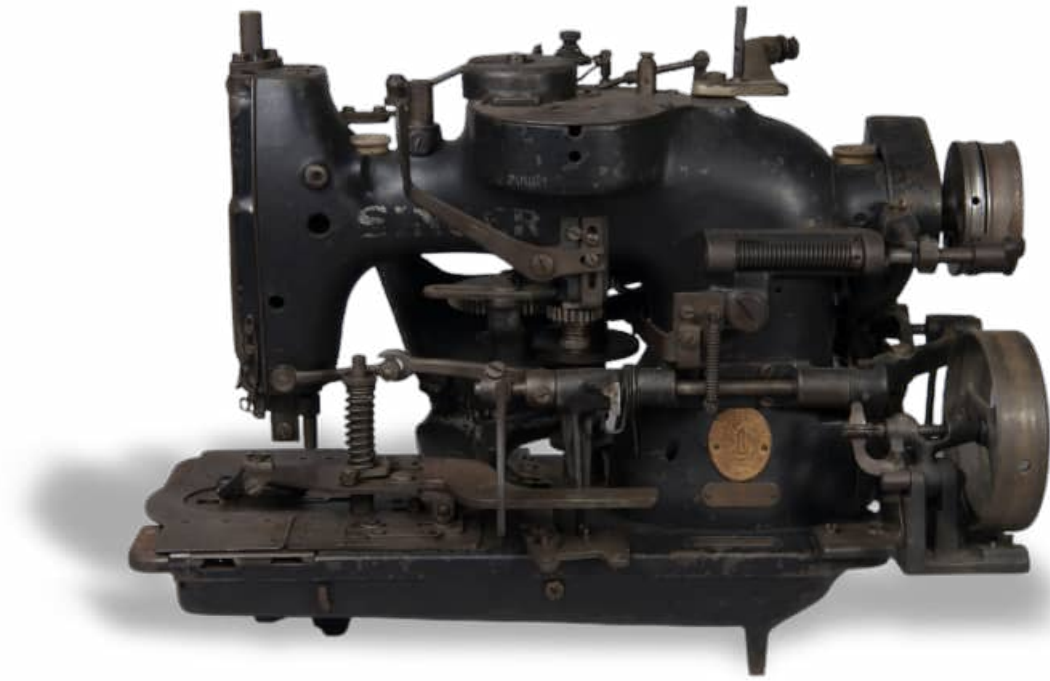
20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52.3, 세로 22.6, 높이 33.3

현대



리

재봉틀

Sewing Machine

가로 45.1, 세로 19.3, 높이 29.2

현대

SINGER사의 71-101 모델로, 단추구멍을 만드는 산업용 재봉틀이다. 1960~1970년대 한국의 봉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며 의류 생산에 활용되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구름 솜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샤쓰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너머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 눈이 온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 새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사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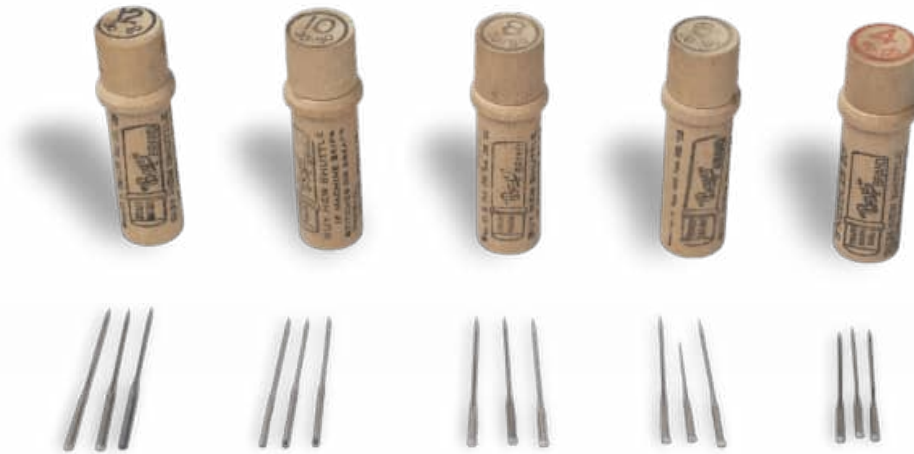
노래 <사계> 연결하기

미상은 우리의 112 생강이다
타고 기쁨 온다



<해외수출공업단지개발공장작업광경>

1972년, 국가기록원(관리번호:CET0037909)



22

재봉틀 바늘 12, 10, 8, 6, 4호

Sewing Machine Needle

12호 길이 5

10, 8, 6호 길이 4.6

4호 길이 3.9

현대

손바늘은 호수 숫자가 클수록 가늘어지는 구조이지만, 재봉틀 바늘은 반대로 호수 숫자가 클수록 굵어진다.

또한 재봉틀 바늘은 천을 뚫는 끝부분에 바늘귀가 있어, 바느질 방식에서도 손바늘과 차이를 보인다.

23

일제바늘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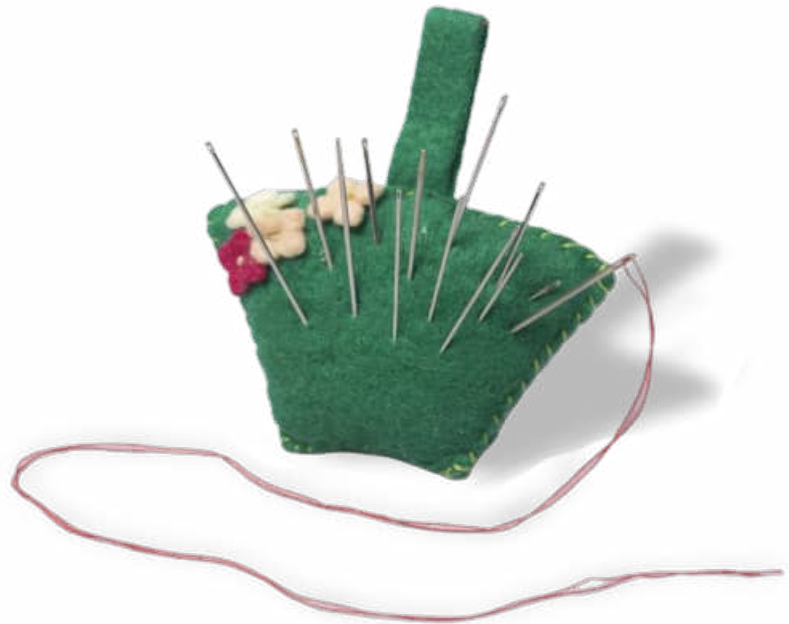
Japanese Needle Set

가로 6.8, 세로 7.4, 바늘 길이 3.5~5.3

현대

윤미숙 기증(2024)

기증자의 어머니가 일본으로 재가하여 40년간 사용한 바늘이다. 어머니가 80대에 한국으로 돌아오며 기증자에게 전해졌고, 이후 철박물관에 기증하였다.





24

가마니 바늘
Straw Needle

길이 20.2~22.5

현대

벗집을 씨줄로 넣을 때, 가마니를 다 짠 후 반으로 접어 자루 형태로 만들 때 꿰매기 위해 사용한다. 사용하다보면 바늘이 휘어진다.



25

쪽가위

Thread Clipper

길이 11, 너비 2.5, 두께 1.2

현대

우리의 속담이나 관용구에는 농기구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괭이자루가 쉽게 빠지면 가문다.

쇠스랑 밭은 세 개라도 입은 한 치다.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처럼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장들은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호미와 가래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낮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속담을 통해

낮은 ㄱ자 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기도 한다.

철박물관 이웃들은 다양한 농작물을 키운다. 기후변화로 예전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방법이 달라졌다. 그리고 일손 부족은 이주민의 손길을 빌리기도 한다. 로봇 농작이 작은 농가에까지 본격화된다면 이런 농기구들은 점점 더 지금의 시간과 멀어질 것이다.

26

낫
Sickle

자루 길이 38.4~41.2, 날 길이 20.6~20.9

현대
윤미숙 기증(2024)

기증자가 7년 동안 밭농사에 사용한 낫이다.
낫을 갈아 쓰지 않고 해마다 새로 구입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낫들에는 기증자의
7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27

낫
Sickle

전체 길이 44.2, 자루 길이 40,
날 길이 23.3

현대



28

낫
Sickle

길이 27.5, 너비 33.5

현대



29

낫
Sickle

길이 48.8, 너비 8.5

현대



30

낫
Sickle

전체 길이 30.5, 낫 길이 31

현대



31

낫
Sickle

전체 길이 34.5, 자루 길이 11.6,
날 길이 19.6

현대



32

낫
Sickle

전체 길이 60.3, 자루 길이 30

현대



33

낫
Sickle

전체 길이 32.6, 낫 길이 9.5

현대



34

낫
Sickle

위: 전체 길이 42.2, 자루 길이 29.8
바깥 낫 길이 9.7

아래: 전체 길이 24, 자루 길이 15.5

현대



35

호미(왼), 양귀호미(오)

Homi

왼: 전체 길이 32.2, 자루 길이 11.8

오: 전체 길이 41, 자루 길이 29.4

현대



36

괭이

Hoe

길이 51, 너비 15.6, 높이 6.8

현대



37

쇠스랑
Pitchfork

길이 39.3, 너비 9.7, 높이 12.6

현대



X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내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떨 때 그것을 사용하나요?



휴대폰.

누군가가 그리울 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나에게 친구도, 도움도 되어줍니다.



지갑.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 꼭 챙겨다니답니다.



열쇠 꾸러미

언제나 그림고 행복한 집으로 고고고...

물티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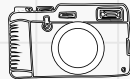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다니다보면 항상 필요하게 되는게 물티슈라

이제는 모든 가방에 넣어두고 다닐 정도로

없으면 안되는 물건이에요.

카메라.



카메라는 아이들을 찍어주기 위해

항상 사진기를 가지고 다녀요~~

립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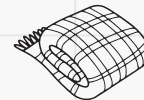
외출했을 때 항상 입술을 살펴보고 사용한다.



나의 동반자 다이어리.

내 일상의 기억을 소중하게 쌓아주는 나의 소중한 다이어리.

늘 내 곁에 있어주렴~~



담요.

아이들이 추울까봐 항상 가지고 다녀요~~

내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물건은 메모지와 펜입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깜빡 깜빡해서

메모하는 습관으로 가지고 다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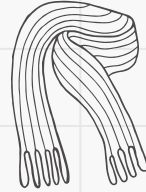
+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구가 된 물건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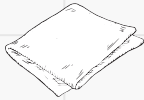
인형이 있는데, 1살때 갖고 놀고 안버린 인형
왜 갖고 있을까?~



스카프.

20년 된 거고 어디든지 외출할 땐 가지고 다니면 든든하다.
목이 추우면 목에다 하고 무릎이 시리면 무릎에다 한다.

목수건. 갱년기를 함께 한 물건



빨간색 이불.



따뜻하고 포근히 날 안아주었던 내 10년지기 친구



만년필.

만년필로 오랜 시간 필기도 하고 일기도 쓰면서
친구처럼 손에 익고 관리해주고 있어요~~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물건. 곰인형.
기억도 안나는 어릴적부터 안고 자기도 하고
같이 등원도 하며 지낸 인형이 있습니다.



노트북.

너무 힘든 친구

+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소중한 물건이 있나요?

그것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은 노래를 인터넷이나 파일을 다운받아
듣지만 예전에는 테이프에 녹음하여 녹음기를 들어야 했지요.

특히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녹음기는
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장나서 사용못하지만 크지도않고 손때묻은 그것을
차마 버릴 수 없네요.



비행기 우표를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은 편지를 쓰지않아 우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보면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하기도 했지요.

지금 우표첩 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날의 꿈과 상상의 날개도

제 마음 한 곳에 항상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 주신 대학교등록금과 할머니의 쌈지돈을 합쳐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라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나의 소중한 피아노.

50이상된 지금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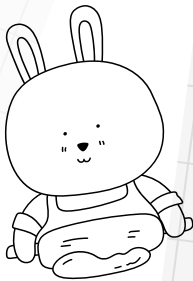


학창시절 나의 친구들과 나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낡고 먼지가 많이 묻어있지만 이사갈때마다 함께다닙니다



딸랑이, 베넷저고리.
아이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오가닉 딸랑이 세개,
조리원퇴소때 입고나손 베넷저고리.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 후에 물려주려고 보관중입니다.
물건을 볼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4살 크리스마스 때 사주신 인형.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선물이라서 버릴 수 없고

어릴 때부터 동생과 같이 이름도 붙여주고 같이 놀고 오랜 시간 함께한 인형이라서
버릴 수가 없다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답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물건 역시 생산부터 쓰임, 이동, 폐기까지 그것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를 가진 인간과 물건이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간은 특정 물건을 사용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물건 또한 사용됨과 동시에,

기성품에서 벗어나 고유의 이야기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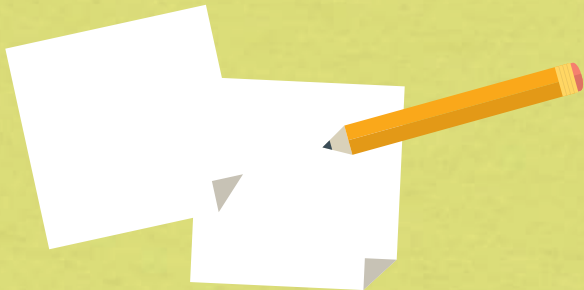
주변을 둘러보자.

마트에 진열된 기성품과 다른 '나의 물건'이 보이는가?

손때가 묻고 나의 이야기가 보이는 그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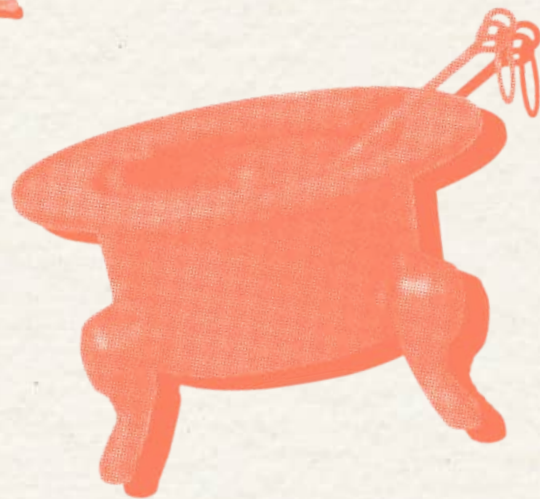
나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무엇인가?

그 서사를 찾아보자.



<지역민 이야기> 연결하기
박춘수(철사랑공업사) 인터뷰

이야기





38

농약살포기 분사구

Pesticide Applicator Nozzle

길이 88.5

현대

미당농원 기증(2024)



39

전지톱날

Pruning Saw Blade

길이 39.5

현대

미당농원 기증(2024)



니0

전지가위

Secateurs

길이 18.9~21.3

현대

미당농원 기증(2024)



니1

가위

Scissors

길이 21

현대



42

가위
Scissors

길이 9.5

이란



43

미용가위세트

Hairdressing Scissors Set

가위(왼): 길이 15

가위(오): 길이 16.1

케이스: 가로 20.4, 세로 3, 높이 2.7

현대

황현주 기증(2024)





니나

옛꿀, 옛가위

Cutter and Scissors for Taffy

옛꿀: 길이 17.3, 날길이 8.7

옛가위: 길이 26.2

현대

옛가위는 자르는 용도보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옛을 자를 때는 옛꿀이라는 넓적한 쇠칼을 옛에 대고 옛가위로 옛꿀을 내리쳐 옛을 끊어낸다.

“

이게 밑에 다리가 있는거 아시죠? 다리.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팔아먹어서 없애버렸고(중략)

”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옛은 먹고 싶은데 옛 사 먹었죠. 이거를.

- <재봉틀>대여자 석균석 님 인터뷰 중 -

한국에는 어떤 물건을 ‘옛으로 바꿔 먹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나 쇠붙이, 빈 병 등 고물을 내어주고 옛으로 바꿔 먹었던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이때 옛장수는 자신의 마음대로 고물에 가치를 매겨 옛과 바꿔주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가져가도 바꿔주는 옛의 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옛장수 마음대로’라는 관용표현이 사용되었고, 제멋대로 변덕을 부리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옛과 바꿔 먹었던 물건이 있나요?



45

옛끝

Cutter for Taffy

길이 14.3, 날길이 7.5

현대



46

옛가위

Scissors for Taffy

길이 13.2

현대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노라니까 옛장수가 문전으로 지나가면서 “헌 유기나 부러진 수저로 엿들 사시오”하고 외쳤다. 나는 엿은 먹고 싶으나 옛장수가 아이들의 고추를 잘라 간다는 말을 어른들께 들은 일이 있었기에 방문을 꼭 닫아 걸고 옛장수를 부른 뒤에 아버지의 성한 손가락을 발로 디디고 분질러서 반은 두고 반은 창구멍으로 내밀었다. 헌 손갈이랴야 엿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옛장수는 내가 내미는 반 동강 손갈을 받고 엿을 한 주먹 뭉쳐서 창구멍으로 들이밀었다. 반 동강 손가락을 옆에 놓은 채 한창 맛있게 엿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 질문하시기에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다시 그런일을 하면 경을 친다고 하시고 때리지는 않으셨다.

김구, 『백범일지』,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2024.



47

컷터칼날

Snap off Blade Cutter(Blade)

칼날: 길이 11

케이스: 길이 11.8, 높이 2.5

현대

시장정육식당 기증(2024)

사무용품으로 흔히 사용되는 컷터칼날이지만,
장호원 시장정육식당에서는 이를 끌처럼 이용해 불판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대를 이어온 온기

증조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화로는 할머니의 안방을 지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전해졌다.

세대를 건너 이어진 이 화로는 단순한 난방 기구를 넘어, 한 집안의 시간을 품어 온 작은 불자리였다.

기증자 박희정 님의 기억 속 <화로>를 들여다본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화로를 방 한가운데 두고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고르셨다. 그 곁으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기종기 둘러앉았다. 발갛게 익어가는 숯불을 찌며 나누던 이야기와 웃음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따뜻한 풍경으로 남아 있다.



48

화로

Brazier

최대지름 38.2, 바닥지름 25, 높이 19.7, 두께 0.8

현대

박희정 기증(2025)



나9

화로

Brazier

최대지름 41.4, 입지름 29.5, 바닥지름 20.5, 높이 17.3, 두께 0.4

현대



50

화로

Brazier

본체: 최대지름 25, 바닥지름 16.6, 높이 15.4

부젓가락: 길이 22.4

현대







51

화로
Brazier

뚜껑: 지름 10.5
솔: 지름 22.8
화로: 최대 지름 29

현대



52

난로(무쇠난로)

Heater

높이 72.8

현대



S3

전기난로

Heater

가로 27.8, 세로 13.2, 높이 28.9

현대



철 물건 이야기 찾기



만남의길과 **로사**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나의 철 물건)	안경	물건 사용 방법 (나의 철 물건의 용도)	안경 착용하기
제작자 이름 (나의 철 물건)	다비치 안경	제작 방법/소재	천
제작한 시기 (연)	2020	제작한 시기 (연)	안경

만남의길과 이야기 (나의 철 물건) 나의 철 물건 이야기

크기: 가로 14cm, 세로 9cm

제작 이유나 특별한 점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나의 철 물건' 만경은, ' 로사'다. 다. 철박물관

만남의길과 **세티**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나의 철 물건)	안경	물건 사용 방법 (나의 철 물건의 용도)	안경 착용하기
제작자 이름 (나의 철 물건)	다비치 안경	제작 방법/소재	천
제작한 시기 (연)	2020	제작한 시기 (연)	안경

만남의길과 이야기 (나의 철 물건) 나의 철 물건 이야기

크기: 가로 14cm, 세로 9cm

제작 이유나 특별한 점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나의 철 물건' 세티'다. 다. 철박물관

만남의길과 **인크**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나의 철 물건)	안경	물건 사용 방법 (나의 철 물건의 용도)	안경 착용하기
제작자 이름 (나의 철 물건)	다비치 안경	제작 방법/소재	천
제작한 시기 (연)	2020	제작한 시기 (연)	안경

만남의길과 이야기 (나의 철 물건) 나의 철 물건 이야기

크기: 가로 14cm, 세로 9cm

제작 이유나 특별한 점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안경은 눈과 시야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또한, 안경은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의 피로도를 줄여 줍니다.

나의 철 물건' 인크'다. 다. 철박물관

+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세탁소 옷걸이>처럼 하찮게 보였던 것,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언제,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8살 우리 아이가
문서용 클립을 펼쳐서
고무줄을 얹어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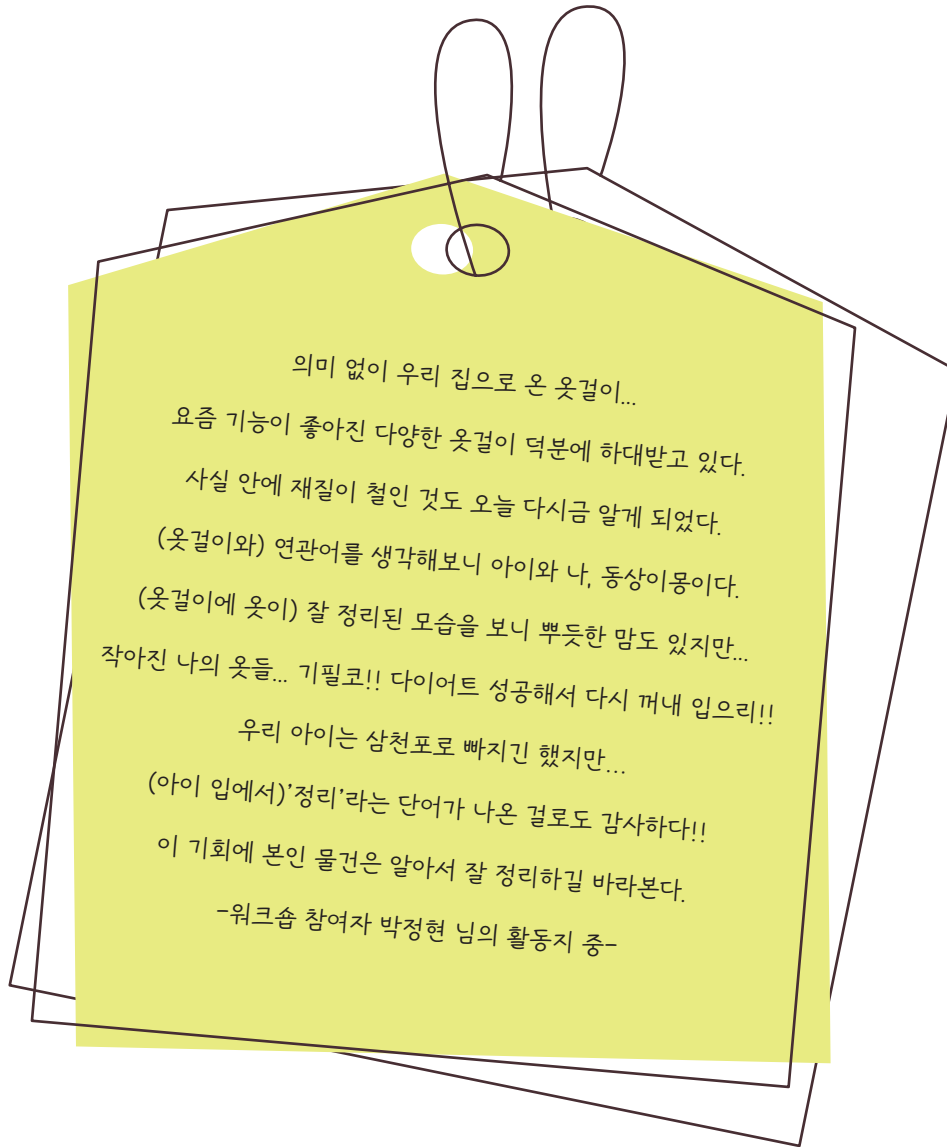
키친타올 걸이.
독서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집에 가면은 우리 인자 그 노인정에 인자 가면, 우리 아버님하고 노인정 가면 인자 캔맥주를 준다. 아닙니까?

캔맥주를 하나씩 가(저)다가 갔다 오면, 술을 안 자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놓는 거라니까예.
놔놔다가 거기 인자 베개같은 거 만들 때 재단해가지고 잡아주려면 그 맥주를 늘려놓고 기르고

그 자로 재보는 상황 그것만 기억나고예.

- <재봉틀>기증자 강창원 님의 인터뷰 중 -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답변입니다.

바람 = '바라다' 그리고 '~풍'

'바람'은 자연 현상(風)을 뜻하는 동시에 '바라다(希)'에서 온 소망, 그리고 '~풍(風)'으로서 분위기·기운을 포괄하는 다층적 단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동네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어릴 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지역은 1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선생님의 말씀 속에는 지역의 발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진학과 직장 때문에 10년 정도 떠났다 돌아온 지역은 많이 변해 있었다. 내가 다녔던 학원, 그 학원에 가기 전에 들렀던 만화방이 모두 사라졌다. 변화는 아쉬움을 남겼고, 그토록 지역민이 바라던 기차역이 생겼고, 체육센터도 건립되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분다.

지금 감곡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가?

지역민이 품어온 작고 단단한 바람들이 <자물쇠>, <화로> 등에 담겨있다. 자물쇠를 열어 새로운 생각을 꺼내보고, 화로는 쓰이지 않아도 그 기능을 담은 새로운 물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새로운 시대를 향해 흐르길 바라는 열망을 '감곡풍'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퍼트릴 수 있을까?



wish의 의미: 개인적 염원, 사회적 변화
風の 의미: 한 시대의 일정한 양식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용어

살바도르



54

자물쇠

Lock

가로 10, 세로 4.5

현대

박희정 기증(2025)



“

우연히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자물쇠...

복잡한 내 생각도 열렸으면...

- 워크숍 참여자 김종권 님의 활동지 중 -

”

비밀 일기장을 써보셨나요?

일기장에 자물쇠를 건다는 건 나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비밀을 만들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물쇠는 일반적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체정보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자물쇠는 열쇠가 없다면 열 수 없기 때문에 ‘미해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딱 막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열쇠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55

자물쇠

Lock

길이 14, 너비 4.4, 높이 9.1

열쇠 길이 14.1

현대

자물쇠는 크게 몸체에 해당하는 자물통,
자물통 속에 들어있는 잠금쇠,
자물통과 잠금쇠를 분리하는 열쇠로 이루어져 있다.



56

자물쇠

Lock

길이 9.6, 너비 1.7, 높이 4

열쇠 길이 10

중국







57

자물쇠(사자)

Lock(Lion)

길이 5.7, 너비 4.7, 높이 1.4
열쇠 길이 7.7

중국



58

자물쇠(황소)

Lock(Bull)

길이 9.5, 너비 3.5, 높이 5.3
열쇠 길이 7.8

중국

59

자물쇠(물고기)

Lock (Fish)

길이 12, 너비 4.5, 높이 5.4
열쇠 길이 14.1

중국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에는 소중한 것을 지켜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에서는 물고기를 뜻하는 魚와 餘(남을 여)의 발음이 비슷하여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60

자물쇠(새우)

Lock (Shrimp)

길이 11, 너비 2, 높이 5.4
열쇠 길이 9.5

중국





61

자물쇠(거북)

Lock (Turtle)

길이 9.6, 너비 6.5, 높이 4
열쇠 길이 7.8

중국

중국의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 의하면,
거북은 봉황, 용, 기린(麒麟)과 함께
신령스러운 네 가지 동물(사령四靈)로 여겨졌다.



62

자물쇠(게)

Lock (Crab)

길이 9.4, 너비 2.6, 높이 4.7
열쇠 길이 5.2

중국

63

자물쇠

Lock

길이 14.4, 너비3, 높이 7.5

열쇠 길이 14

중국



64

자물쇠(용)

Lock (Dragon)

길이 9.1, 너비 4.2

열쇠 길이 7.5

중국



65

자물쇠

Lock

높이 20, 열쇠 길이 6

이란



66

자물쇠

Lock

높이 25, 너비 12.3

열쇠 길이 5.6

이란



“

”

덴마크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의자를 갖게 된대요. 그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와도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수에게도 자기만의 대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떤 목수분들의 공방에 가면 마치 인테리어처럼 대패가 이렇게 크게 진열돼있는,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게 있어요.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어떤 노하우들을 보여주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목수에게는 수공구, 특별히 대패가 애착인형과 같은 존재예요. (중략) 저에게도 이제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입하게 된 구비하게 된 대패였고, 그래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땀자국이 묻을 정도로 많이 사용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그런 존재다. (중략) 덧붙이자면 오래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친구다. 정말 좋은 목재의 친구다. (후략)

- 워크숍 참여자 숲속인생 이영상 님의 말씀 중 -

목수의 바람을 담아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인 대패.

대패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평대패, 배대패, 모서리대패, 홈대패 등 쓰임에 따라 제각각 생긴 모양도 다르다.



67

대패

Plane

가로 27.6

세로 8.7

높이 6.8

현대



68

대패

Plane

가로 16.2

세로 5.3

높이 6.4

현대

69

대패

Plane

길이 23.2

가로 19.1

세로 7.1

높이 5.7

현대



70

대패

Plane

가로 24.3

세로 2.1

높이 9.1

현대



『타샤의 그림 정원』이라는 책에

어린 아이가 공구함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다.

공구함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와 고양이 주위에 망치, 가위, 톱, 핸드 드릴 등이 널려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

71

수동 드릴
Manual Drill

길이 48

현대





72

수동 드릴
Manual Drill

길이 37.6

현대
강창원 기증(2024)

기증자의 아버지가 월남 후 부산에서 목공소를 운영했을 때 사용하던 공구다. 50년 전 구매하였고, 현재도 사용이 가능하다.



73

자동 드라이버
Screwdriver

길이 37

현대
강창원 기증(2024)

스프링이 내장되어 압력을 가하면 자동으로 회전한다. 기증자의 아버지가 부산 목공소에서 사용하였다.

74

도래송곳

Auger

길이 51.5, 자루 길이 43.1

현대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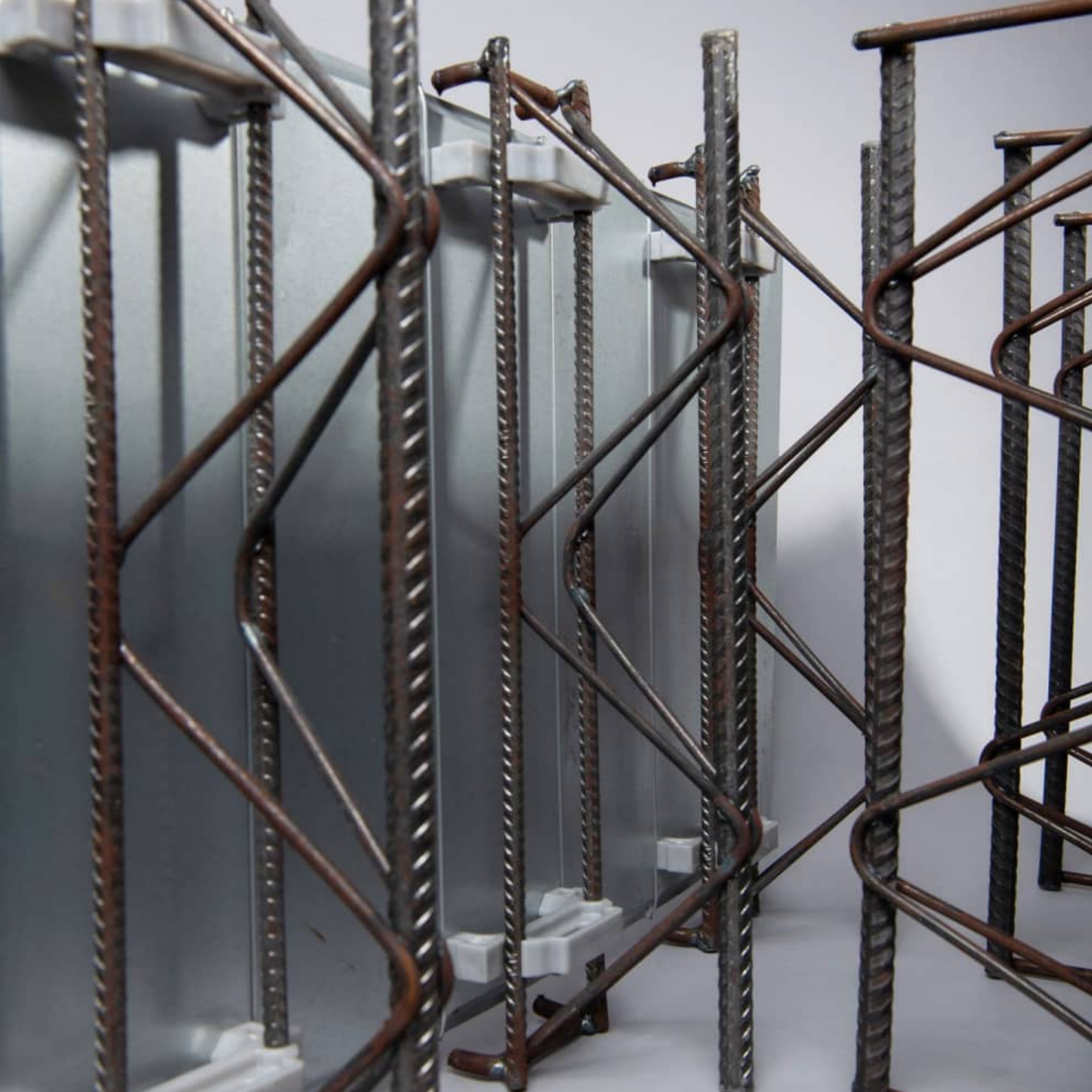
수동 드라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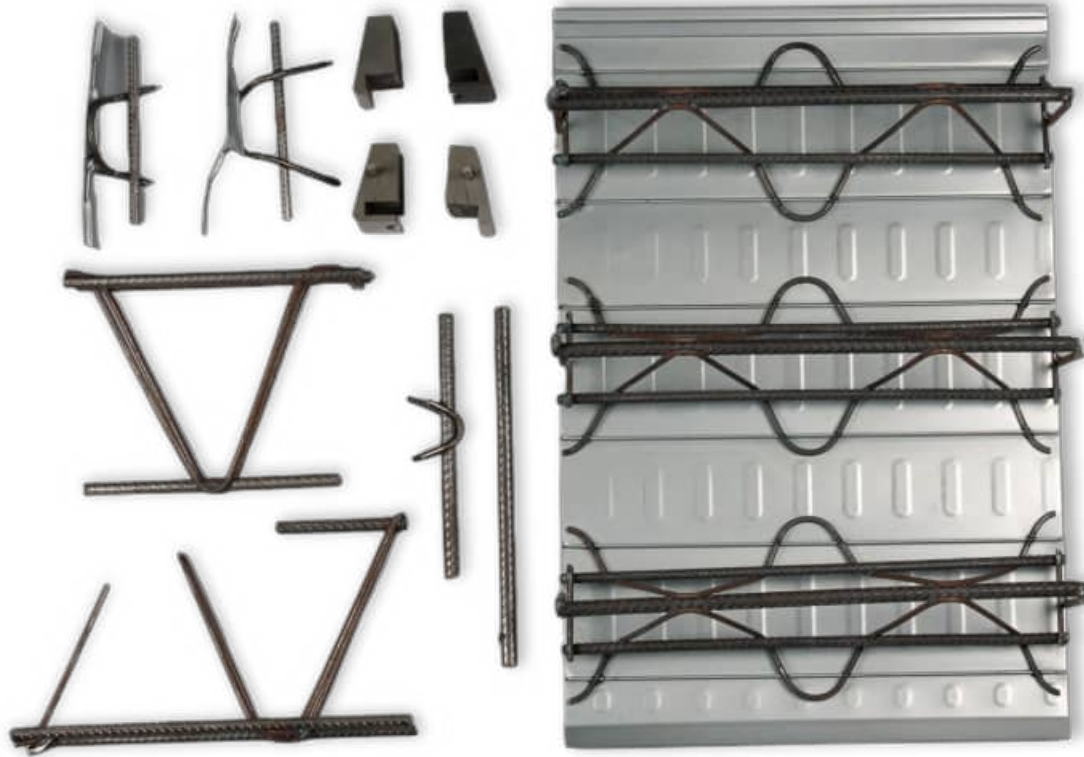
Manual Screwdriver

길이 40

현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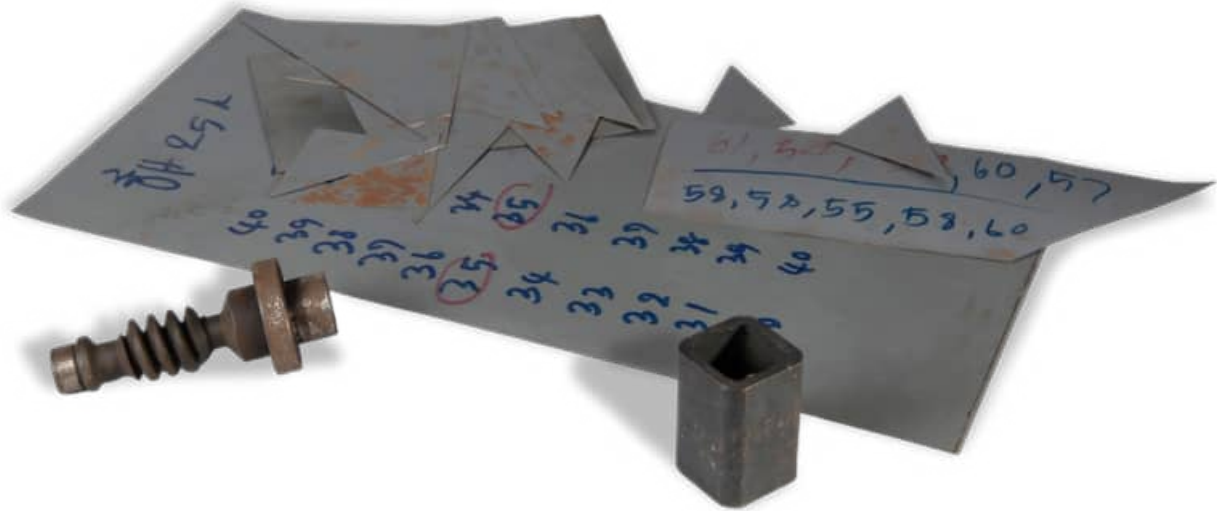
데크 플레이트 샘플

Deck Plate Sample

현대

원하이텍 기증(2024)

데크 플레이트는 합판 거푸집 대신 사용되는 금속 조립 구조재료로, 건축물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지대(보) 사이에 설치해 공정을 돕는다. 이 샘플을 기증한 원하이텍은 데크 플레이트의 제조·판매 및 시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77

전기강판편

Electrical Steel Sheet

현대

거암코아 기증(2024)

거암코아는 감곡에 위치한 회사로서 전기강판 원재료 판매부터 45도 STEP CORE까지 생산하는 곳이다.



78

크랭크샤프트

Crankshaft

가로 46, 세로 14, 높이 11.5

현대

부산주공 기증



79

스티어링 너클

Steering Knuckle

가로 34, 세로 29, 높이 14

현대

부산주공 기증



80

등속조인트(엑셀)
Constant Velocity Joint

(위) 길이 91.8,
(아래) 길이 52.2

현대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81

로어암

Lower Arm

길이 40.8

현대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82

디스크로터

Disk Rotor

지름 21.4, 두께 3.1

현대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지역민 이야기> 연결하기
최윤혁(제일자동차부품) 인터뷰



83

브레이크 드럼

Brake(Casting) Drum

윗지름 36, 바닥지름 38.2, 높이 14.5

현대



84

캘리퍼캐리어

Volvo Truck, ELSA2, Calliper Carrier

가로 47.5, 세로 14, 높이 16

현대



85

캘리퍼하우징

Volvo Truck, Calliper Housing

가로 42, 세로 17.5, 높이 13

현대

“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회용 사용을 줄이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텀블러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 워크숍 참여자 지니 Lim 님의 활동지 중 -

”



아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86

고철 스크랩

Scrap Metal

현대

철강 생산·가공 과정과 폐가전 등에서 발생하는 철재를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가공한 친환경 제강 원료이다.

<고철 스크랩>은 전기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녹아 쇳물이 되고,

다시 새로운 철로 태어난다.

철박물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전기로>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 가동되며

이러한 철의 순환을 실현했던 산업유산이다.



<전기로 공정> 연결하기

철 물건 이야기 찾기



인남김괴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술속인생
이영성

의 철 물건 이야기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보유한 이름)	필드 대가리 (조별 대표가리)	출장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50원 권에 목을 매는다는 사실은바라바 규인
보유자인 곳 (국가/회사)	파라핀(한국) 3세대개발 이영성, 김남(일본)	코리아걸 (일본상) - 이영성, 김남 한국 (회사명) - 다미미	
보유자인 사람 (본인)	가이(유니콘)	현민재 현민재 팀, 이영성 팀	3. 좌우의 인상을 수동으로 수직시켜 정각하는 생각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다들 안 하는 것 같아 재미있어

인상하고 묘사하기

김남씨가 가지고 목을 매 어뢰같은 게 하나
수동(시계와 같은)을 연결하고
대대적으로 건이 걸어진 것인데 후 부터
수동으로 자동하게 움직이도록 수동으로
구사하게 되는
철물품 특성이 잘 나타나서 목에 걸린만큼
힘이 약하면 목에는 힘이 안 들어
목수의 주먹과 구구

① 대미미
크기 : 길이 약 30cm, 폭 10cm, 높이 10cm, 무게 100g
② 남쪽에서 보았을 때

사진 찍어 보기



① 남쪽에서 보았을 때

설기 가지고 변질된 묘사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이야기해 보기

평범한 엔지니어 자신만의 의욕을
같이 뛰고 있다. 목수나 친구에 대한
특유한 애착이 그대의 문화를 감
성하게 주는 인과라고 본다. 이렇듯
목수에게도 저마다의 대미나 수공구는
가진 있다. 모든 수공구나 우리 인생은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인남김괴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술속인생
이영성

의 철 물건 이야기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보유한 이름)	필드 대가리 (조별 대표가리)	출장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50원 권에 목을 매는다는 사실은바라바 규인
보유자인 곳 (국가/회사)	파라핀(한국) 3세대개발 이영성, 김남(일본)	코리아걸 (일본상) - 이영성, 김남 한국 (회사명) - 다미미	
보유자인 사람 (본인)	가이(유니콘)	현민재 현민재 팀, 이영성 팀	3. 좌우의 인상을 수동으로 수직시켜 정각하는 생각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다들 안 하는 것 같아 재미있어

인상하고 묘사하기

김남씨가 가지고 목을 매 어뢰같은 게 하나
수동(시계와 같은)을 연결하고
대대적으로 건이 걸어진 것인데 후 부터
수동으로 자동하게 움직이도록 수동으로
구사하게 되는
철물품 특성이 잘 나타나서 목에 걸린만큼
힘이 약하면 목에는 힘이 안 들어
목수의 주먹과 구구

① 대미미
크기 : 길이 약 30cm, 폭 10cm, 높이 10cm, 무게 100g
② 남쪽에서 보았을 때

사진 찍어 보기



① 남쪽에서 보았을 때

설기 가지고 변질된 묘사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이야기해 보기

평범한 엔지니어 자신만의 의욕을
같이 뛰고 있다. 목수나 친구에 대한
특유한 애착이 그대의 문화를 감
성하게 주는 인과라고 본다. 이렇듯
목수에게도 저마다의 대미나 수공구는
가진 있다. 모든 수공구나 우리 인생은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인남김괴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술속인생
이영성

의 철 물건 이야기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보유한 이름)	필드 대가리 (조별 대표가리)	출장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50원 권에 목을 매는다는 사실은바라바 규인
보유자인 곳 (국가/회사)	파라핀(한국) 3세대개발 이영성, 김남(일본)	코리아걸 (일본상) - 이영성, 김남 한국 (회사명) - 다미미	
보유자인 사람 (본인)	가이(유니콘)	현민재 현민재 팀, 이영성 팀	3. 좌우의 인상을 수동으로 수직시켜 정각하는 생각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다들 안 하는 것 같아 재미있어

인상하고 묘사하기

김남씨가 가지고 목을 매 어뢰같은 게 하나
수동(시계와 같은)을 연결하고
대대적으로 건이 걸어진 것인데 후 부터
수동으로 자동하게 움직이도록 수동으로
구사하게 되는
철물품 특성이 잘 나타나서 목에 걸린만큼
힘이 약하면 목에는 힘이 안 들어
목수의 주먹과 구구

① 대미미
크기 : 길이 약 30cm, 폭 10cm, 높이 10cm, 무게 100g
② 남쪽에서 보았을 때

사진 찍어 보기



① 남쪽에서 보았을 때

설기 가지고 변질된 묘사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이야기해 보기

평범한 엔지니어 자신만의 의욕을
같이 뛰고 있다. 목수나 친구에 대한
특유한 애착이 그대의 문화를 감
성하게 주는 인과라고 본다. 이렇듯
목수에게도 저마다의 대미나 수공구는
가진 있다. 모든 수공구나 우리 인생은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인남김괴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술속인생
이영성

의 철 물건 이야기

10개의 철 물건 이야기


물건 이름 (내가 보유한 이름)	필드 대가리 (조별 대표가리)	출장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50원 권에 목을 매는다는 사실은바라바 규인
보유자인 곳 (국가/회사)	파라핀(한국) 3세대개발 이영성, 김남(일본)	코리아걸 (일본상) - 이영성, 김남 한국 (회사명) - 다미미	
보유자인 사람 (본인)	가이(유니콘)	현민재 현민재 팀, 이영성 팀	3. 좌우의 인상을 수동으로 수직시켜 정각하는 생각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다들 안 하는 것 같아 재미있어

인상하고 묘사하기

김남씨가 가지고 목을 매 어뢰같은 게 하나
수동(시계와 같은)을 연결하고
대대적으로 건이 걸어진 것인데 후 부터
수동으로 자동하게 움직이도록 수동으로
구사하게 되는
철물품 특성이 잘 나타나서 목에 걸린만큼
힘이 약하면 목에는 힘이 안 들어
목수의 주먹과 구구

① 대미미
크기 : 길이 약 30cm, 폭 10cm, 높이 10cm, 무게 100g
② 남쪽에서 보았을 때

사진 찍어 보기



① 남쪽에서 보았을 때

설기 가지고 변질된 묘사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이야기해 보기

평범한 엔지니어 자신만의 의욕을
같이 뛰고 있다. 목수나 친구에 대한
특유한 애착이 그대의 문화를 감
성하게 주는 인과라고 본다. 이렇듯
목수에게도 저마다의 대미나 수공구는
가진 있다. 모든 수공구나 우리 인생은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목수, 목수, 수공구, 수공구,
창작, 즐거운 목재의 특성이라,
목수의 친구, 직접 제작, 애착,
전통, 역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때에도, 비록 직접 제작한
친구 같은 존재라, 목수에게 수공구 시키는
자아를 주는 수공구라, 애착 많이 생기는데,
그 존재라 하여, 수공구 이 때에도, 친구라
다가와, 지극히 행복감이 수공구이다.

나의 철 물건 '대미' 은



+와글와글 더하는 이야기

취업을 준비하는 북극곰님처럼, 내 주변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응원을 남겨주세요.


황소처럼! 붉은 것을 본 황소처럼 그냥 달려라!
주변에 무엇이 있던, 뭐라 하던 나아가라!

지금 당장 힘들어도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이팅!

포기하지않고 나아가면
길은 한가지가 아닌 여러 길을 마주하게될거야
지금은 힘들고 지치겠지만
나중엔 그게 너의 원동력이 될거야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말자.

화이팅이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꽃을 피우실수 있을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 주저 않고 싶은 일도 생기겠지만
주변에 응원해주는 이웃들이 많으니
언제 어디서나 힘내셨음 좋겠어요
화이팅이에요...

늦음이란 없다.
세 아이의 엄마로만 생활하던 동생들이
늦깎이 학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속에서
나를 찾는 동생들을 보며 늦음이란 없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더욱 빛을 발휘할
잠재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힘
동생들아 힘내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내 코가 석자인 아무개입니다..

요즘 취업이 정말정말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눈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출중한 친구들인데 어필을 못하는건지 자신과 맞는 직장을 아직 찾지 못한건지 취업기간이 짧진않네요...

어른들은 언젠가 지나갈거다, 하면된다 라고 하시지만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의구심을 품게돼요. 물론 시간은 지나갈테지만 그 시간을 내가 잘 버텨내고 지나보낼 수 있을까, 저들은 다 지나갔으니 할 수 있는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물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고 따뜻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이 쉽지 않은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취업의 문은 좁고 달려드는 지원자는 많고 누군가는 낙방하는게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가도 마음은 조금하고 불안하다보니 시야가 좁아지나봐요.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최근 뉴스에서 보이던 일들도 마음이 지나치게 간절하거나 조금해서 판단력이 흐려진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관문들이 어깨도 마음도 위축하게 만드네요. 그럼에도 터널 끝엔 빛이 있을거라고 스스로라도 되뇌이면서 계속 걸어나아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을 것 같아요.. 차 쌩쌩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냥 씩씩하게 한발한발 나아가야죠.. 삶은 어차피 각자의 1인분이라 태초적인 외로움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북극곰님이 걸어가는 길에 저와 같은 동행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덜 외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말동무라도 있어야 덜 지치고 덜 무서우니까요~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답변입니다.

참고자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 농업 1』, 2020.

박호석, 안승모, 『한국의 농기구: 전통 농경의 역사』, 어문각, 2001.

숫대박물관, 『낮설고도 친근한 우리 숫대』, 현암사, 2012.

이병철, 『수집가의 철학: 휴대전화 컬렉터가 세계 유일의 폰박물관을 만들기까지』, 천년의 상상, 2019.

정명섭, 『근대 사물 탐구 사전』, 초록비책공방, 2023.

조민영, 「근대 재봉틀의 보급과 생활경제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철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소리, 쇠의 혼을 깨우다』, 2014.

지역N문화 홈페이지 (<https://www.nculture.org>)

The brownie camera page

(<https://www.brownie-camera.com>)

도판목록

- 01 **공중전화** Payphone | 가로 25.8, 세로 19.6, 높이 31.2
- 02 **분재 전화카드** Phonecard | 가로 5.4, 세로 8.5
- 03 **공중전화** Payphone | 가로 22.1, 세로 15.9, 높이 38.2
- 04 **전화기** Telephone | 가로 15.8, 세로 17.9, 높이 14.8, 수화기 길이 22.9
- 05 **전화기** Telephone | 충전기: 가로 8.5, 세로 15.1, 높이 5.1/ 무선전화기: 가로 5.2, 세로 7.1, 높이 31.5/ 모뎀: 가로 13.5, 세로 19.3, 높이 4
- 06 **전화기** Telephone | 몸통 길이 22, 수화기 길이 23.6, 전체 높이 21.4
- 07 **전화기** Telephone | 몸통: 가로 14.6, 세로 21, 높이 6.4, 수화기 길이: 20.6 | 이정옥 기증
- 08 **핸드폰 (sch-v840)** Cellphone | 가로 4.5, 세로 10.2, 높이 1.6 | 전경희 대여(2025)
- 09 **핸드폰 (shw-a130k)** Cellphone | 가로 5, 세로 10.5, 높이 1.4 | 전경희 대여(2025)
- 10 **스마트폰(IM-A870K)** Smartphone | 가로 6.7, 세로 13.6, 높이 0.8 | 전경희 대여(2025)
- 11 **카메라** Camera | 가로 7.9, 세로 11.2, 높이 10.5 (가방: 가로 13, 세로 10, 높이 11.4)
- 12 **카메라** Camera | 길이 8.2, 너비 6.7, 높이 4.5
- 13 **카메라** Camera | 가로 16.6, 세로 10.3, 높이 5.2
- 14 **카메라** Camera | 가로 13.3, 세로 5, 높이 7.5
- 15 **카메라** Camera | 가로 10.1, 세로 3.5, 높이 6.2
- 16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55.4, 세로 41.6, 높이 76.1 | 강창원 기증(2025)
- 17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44.5, 세로 21.3, 높이 30.5 | 석균석 대여(2025)
- 18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36.8, 세로 16.1, 높이 32.5
- 19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49.9, 세로 22.6, 높이 35.5 | 이정옥 기증
- 20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52.3, 세로 22.6, 높이 33.3
- 21 **재봉틀** Sewing Machine | 가로 45.1, 세로 19.3, 높이 29.2
- 22 **재봉틀 바늘 12, 10, 8, 6, 4호** Sewing Machine Needle | 12호 길이 5/ 10, 8, 6호 길이 4.6/ 4호 길이 3.9
- 23 **일제바늘세트** Japanese Needle Set | 가로 6.8, 세로 7.4, 바늘 길이 3.5~5.3 | 윤미숙 기증(2024)
- 24 **가마니 바늘** Straw Needle | 길이 20.2~22.5
- 25 **쪽가위** Thread Clipper | 길이 11, 너비 2.5, 두께 1.2

- 26 낫 Sickle | 자루 길이 38.4~41.2, 날 길이 20.6~20.9 | 윤미숙 기증(2024)
- 27 낫 Sickle | 전체 길이 44.2, 자루 길이 40, 날 길이 23.3
- 28 낫 Sickle | 길이 27.5, 너비 33.5
- 29 낫 Sickle | 길이 48.8, 너비 8.5
- 30 낫 Sickle | 전체 길이 30.5, 날 길이 31
- 31 낫 Sickle | 전체 길이 34.5, 자루 길이 11.6, 날 길이 19.6
- 32 낫 Sickle | 전체 길이 60.3, 자루 길이 30, 너비 14.3
- 33 낫 Sickle | 전체 길이 32.6, 날 길이 9.5
- 34 낫 Sickle | 위: 전체 길이 42.2, 자루 길이 29.8, 바깥 날 길이 9.7/ 아래: 전체 길이 24, 자루 길이 15.5
- 35 호미(원), 양귀호미(오) Homi | 원: 전체 길이 32.2, 자루 길이 11.8/ 오: 전체 길이 41, 자루 길이 29.4
- 36 괭이 Hoe | 길이 51, 너비 15.6, 높이 6.8
- 37 쇠스랑 Pitchfork | 길이 39.3, 너비 9.7, 높이 12.6
- 38 농약살포기 분사구 Pesticide Applicator Nozzle | 길이 88.5 | 미당농원 기증(2024)
- 39 전지톱날 Pruning Saw Blade | 길이 39.5 | 미당농원 기증(2024)
- 40 전지가위 Secateurs | 길이 18.9~21.3 | 미당농원 기증(2024)
- 41 가위 Scissors | 길이 21
- 42 가위 Scissors | 길이 9.5
- 43 미용가위세트 Hairdressing Scissors Set | 케이스: 가로 20.4, 세로 3, 높이 27/ 가위(원) 길이 15, 가위(오) 길이 16.1 | 황현주 기증(2024)
- 44 엇끌, 엇가위 Cutter and Scissors for Taffy | 엇끌: 길이 17.3, 날길이 8.7, 엇가위: 길이 26.2
- 45 엇끌 Cutter for Taffy | 길이 14.3, 날길이 7.5
- 46 엇가위 Scissors for Taffy | 길이 13.2
- 47 컷터칼날 Snap off Blade Cutter(Blade) | 칼날 길이 11, 케이스: 길이 11.8, 높이 2.5 | 시장정육식당 기증(2024)
- 48 화로 Brazier | 최대지름 38.2, 바닥지름 25, 높이 19.7, 두께 0.8 | 박희정 기증(2025)
- 49 화로 Brazier | 최대지름 41.4, 입지름 29.5, 바닥지름 20.5, 높이 17.3, 두께 0.4
- 50 화로 Brazier | 본체: 최대지름 25, 바닥지름 16.6, 높이 15.4, 부절가락: 길이 22.4
- 51 화로 Brazier | 뚜껑: 지름 10.5/ 솔: 지름 22.8/ 화로: 최대 지름 29
- 52 난로(무쇠난로) Heater | 높이 72.8
- 53 전기난로 Heater | 가로 27.8, 세로 13.2, 높이 28.9

- 54 **자물쇠 Lock** | 가로 10, 세로 4.5 | 박희정 기증(2025)
- 55 **자물쇠 Lock** | 길이 14, 너비 4.4, 높이 9.1, 열쇠 길이 14.1
- 56 **자물쇠 Lock** | 길이 9.6, 너비 1.7, 높이 4 열쇠 길이 10
- 57 **자물쇠(사자) Lock(Lion)** | 길이 5.7, 너비 4.7, 높이 1.4, 열쇠 길이 7.7
- 58 **자물쇠(황소) Lock(Bull)** | 길이 9.5, 너비 3.5, 높이 5.3, 열쇠 길이 7.8
- 59 **자물쇠(물고기) Lock (Fish)** | 길이 12, 너비 4.5, 높이 5.4 열쇠 길이 14.1
- 60 **자물쇠(새우) Lock (Shrimp)** | 길이 11, 너비 2, 높이 5.4, 열쇠 길이 9.5
- 61 **자물쇠(거북) Lock (Turtle)** | 길이 9.6, 너비 6.5, 높이 4, 열쇠 길이 7.8
- 62 **자물쇠(게) Lock (Crab)** | 길이 9.4, 너비 2.6, 높이 4.7, 열쇠 길이 5.2
- 63 **자물쇠 Lock** | 길이 14.4, 너비 3, 높이 7.5, 열쇠 길이 14
- 64 **자물쇠(용) Lock (Dragon)** | 길이 9.1, 너비 4.2, 열쇠 길이 7.5
- 65 **자물쇠 Lock** | 높이 20, 열쇠 길이 6
- 66 **자물쇠 Lock** | 높이 25, 너비 12.3, 열쇠 길이 5.6
- 67 **대패 Plane** | 가로 27.6, 세로 8.7, 높이 6.8
- 68 **대패 Plane** | 가로 16.2, 세로 5.3, 높이 6.4
- 69 **대패 Plane** | 길이 23.2 가로 19.1, 세로 7.1, 높이 5.7
- 70 **대패 Plane** | 가로 24.3 세로 2.1 높이 9.1
- 71 **수동 드릴 Manual Drill** | 길이 48
- 72 **수동 드릴 Manual Drill** | 길이 37.6 | 강창원 기증(2024)
- 73 **자동 드라이버 Screwdriver** | 길이 37 | 강창원 기증(2024)
- 74 **도래송곳 Auger** | 길이 51.5, 자루 길이 43.1
- 75 **수동 드라이버 Manual Screwdriver** | 길이 40
- 76 **데크 플레이트 샘플 Deck Plate Sample** | 원하이텍 기증(2024)
- 77 **전기강판편 Electrical Steel Sheet** | 거암코아 기증(2024)
- 78 **크랭크샤프트 Crankshaft** | 가로 46, 세로 14, 높이 11.5 | 부산주공 기증
- 79 **스티어링 너클 Steering Knuckle** | 가로 34, 세로 29, 높이 14 | 부산주공 기증
- 80 **등속조인트(엑셀) Constant Velocity Joint** | (위) 길이 91.8, (아래) 길이 52.2 |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 81 **로어암 Lower Arm** | 길이 40.8 |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 82 디스크로터 Disk Rotor | 지름 21.4, 두께 3.1 | 제일자동차부품 기증(2024)
- 83 브레이크 드럼 Brake(Casting) Drum | 윗지름 36, 바닥지름 38.2, 높이 14.5
- 84 캘리퍼캐리어 Volvo Truck, ELSA2, Calliper Carrier | 가로 47.5, 세로 14, 높이 16
- 85 캘리퍼하우징 Volvo Truck, Calliper Housing | 가로 42, 세로 17.5, 높이 13
- 86 고철 스크랩 Scrap Metal

와글와글 감곡: 이야기

2025. 10. 25. ~ 12. 20.

기획	학예연구실
편집	권남희 양승혜 유지혜
수집	권정선 한민호
워크숍	학예연구실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홍보	장옥희
섭외·진행	조정순
기증, 대여	강창원 김영숙 박희정 석균석 전경희
인터뷰 참여	강창원 박춘수 석균석 전경희 최윤희
워크숍 참여	강창원 김병훈 김영숙 김용경 김종권 김파라 김현숙 김희원 박기민 박수정 박정현 박한례 박홍열 배송이 배한이 변경재 변세훈 송하윤 원미숙 유범주 윤소라 윤옥희 윤혜숙 이대구 이미례 이상미 이수진 이순자 이영미 이영상 이영희 이지연 이진영 이화윤 전경희 정경미 정상호 정선아 정제 조웅 최고봉 최인엽 한미경 한미선
지원	김도희 전효재
사진	민경신 이순희
영상	김용우
디자인	아하하 아트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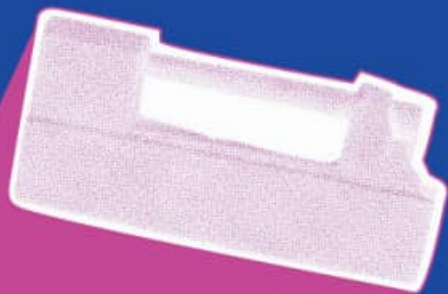
발행인	장인경
발행일	2025. 12.
발행처	철박물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360 www.ironmuseum.or.kr
ISBN	979-11-996220-1-2 (전자책)

Copyright © 2026 철박물관. All rights reserved.

이 도록의 저작권 및 법적 권리는 철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도록에 담긴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최  칠박물관

후원  충청북도  음성군 세연문화재단

